

# 2023 제1차 정기이사회 회 의 록

# 「충남연구원」 2023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 회 의 개 요

1. 일 시 : 2023. 3. 31(금), 10:30 ~ 13:00
2. 장 소 : 연구원 4층 회의실
3. 참 석 : 총 11명(이사 10, 감사 1)
  - 불 참(8명) : 이사장, 김영만 이사, 김황배 이사, 류주현 이사,  
송준호 이사, 홍성주 이사, 정연기 이사, 하승수 감사

## 4. 부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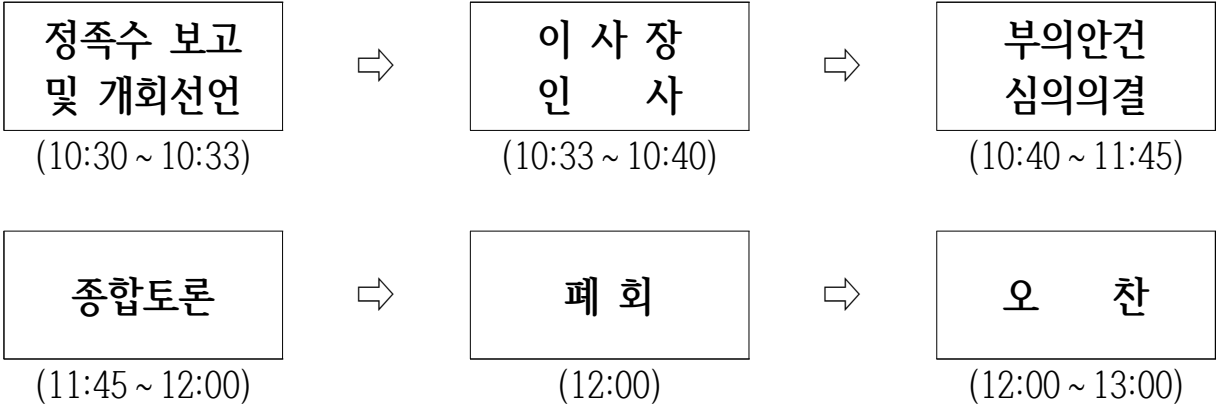
### □ 보고안건으로

- 제1호 2022 사업실적보고
- 제2호 경영효율화 추진사항 보고

### □ 심의안건으로

- 제1호 2022 결산(안)
- 제2호 2023 제1회 추경예산(안)
- 제3호 정관개정(안)
- 제4호 직제규정개정(안)

5. 진행흐름



## □ 회 의 결 과

### □ 간사 안내

- 오늘 이사회는 이사장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연구원 정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께서 "김수민" 이사님을 회의 주재 이사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연구원 정관에 의해 김수민 이사님께서 이사장을 대행해 이번 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었습니다.
- “김수민” 이사님께서서는 이사장 좌석에 앉으시어 이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민 이사 이사장석으로 이동 ]

### □ 개 회(간사)

[국민의례, 성원보고]

### □ 개회선언(김수민 이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 이사장 인사

- 우선 이렇게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특히 오늘은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면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있으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사실은 왔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꼭 참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주 벚꽃이 너무 활짝 피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꽃들이 너무 한꺼번에 피는 바람에 지자체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오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꽃이 한꺼번에 피었다가 한꺼번에 지면 꿀벌들의 보릿고개가 된답니다. 그만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 자연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돌아오면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 문제, 지역사회 고사 문제, 지역 대학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외적으로는 더더욱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또 눈치 없이 북한은 참으로 우리들 보기에 안타까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연구원이 가야 할 길과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한 말씀 드리자면, 충남연구원의 여러 가지 노고들, 연구 결과들 보고서를 내고 하는 그 결과들을 모아서 인포그래픽으

로 만들고 또 ‘정책 이슈 리뷰’라고 하는 것들을 발간해서 도민들과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우선 감사를 표하고, 뭘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중점을 두고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선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 오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안건들에 대해서 이사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좋은 견해를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부의안건 심의의결

### <의 장>

- 그러면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 먼저 회의록 기명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수고해주실 두 분의 이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세은 이사>

- 원래 돌아가면서 하던 거여서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의 장>

- 지난번에 하신 분이 임재영 이사님하고 류주현 이사님이셨는데요. 또 해주십사 요청을 드릴까요? 오늘 류주현 이사님이 안 오셨죠?

<정세은 이사>

○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시간만 맞으면.

<의 장>

○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 마스크 쓰신 두 분께서 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부 이사들>

○ 좋습니다.

<정세은 이사>

○ 마스크를 세 분이 썼는데요.

<박종찬 이사>

○ 가까운 순서대로 해요, 정 이사님부터.

<정세은 이사>

○ 알겠습니다.

<의 장>

○ 그러면 정세은 이사님과 임재영 이사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이사 전원>

- 없습니다.

## <의 장>

- 그러면 두 분이 동의를 받으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 장>

- 다음은 간사께서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을 보고하겠습니다.  
간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오늘 심의의결 하실 안건은
    - 보고안건으로
      - 제1호 2022 사업실적보고
      - 제2호 경영효율화 추진사항 보고
    - 심의안건으로
      - 제1호 2022 결산(안)
      - 제2호 2023 제1회 추경예산(안)
      - 제3호 정관개정(안)
      - 제4호 직제규정개정(안)
-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6건입니다.



## <의 장>

- 그럼 오늘 이사회 부의안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보고의 건으로 “2022년 사업실적 보고” 그리고 “경영효율화 진행사항 보고” 2건 있고, 심의의결 안건으로는 “2022년 결산(안)”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정관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 등 4건이 있습니다.
- 안건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의된 안건을 유사 안건별로 묶어 일괄 상정한 후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이사 전원>

- 없습니다.

## <의 장>

-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유사 안건별로 묶어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모두보고의 건이면서 상호 연계돼 있는
    - 제1호 2022년 사업실적 보고
    - 제2호 경영효율화 진행사항 보고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님은 2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부의안건 보고]

## <의 장>

- 감사합니다.
- 2022년도 사업실적보고 그리고 기관 통합 경영효율화 진행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이사님들께서 2건의 보고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세은 이사>

- 두 개의 기관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여기 보면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 잘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의 장>

- 원장님 말씀,

## <원 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 독립적 기구에서 흡수되는 데 따른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과학기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좀 위축되거나 조금 이렇게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일단 구성원 간에 직급 체계도 다르거든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충남연구원의 통합된 직급 체계에 맞춰서 조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급 체계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 그리고 과학기술진흥 업무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독립적 업무를 조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되, 점차점차 협업이나 이런 게 조금 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교류도 하고 하는 그거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정배 이사>

- 저는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과 박정배입니다. 일단 보니까 너무 어마하게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열정하고, 또 회계도 아주 깔끔하게 요약된 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면서 건의인데, 연구기능을 하다 보면 책으로만 남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쪽저쪽 가서 보니까. 그게 실행을 전제로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의 결과물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그 게 부정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 자체가 훌륭하다고 보여지고, 충남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 저는 이사님들이 다는 아니어도 선별적으로 현장이나 내지는 작업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는 일들이 바쁘셔서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두 개 정도 샘플링을 해서 국내든 국외든 이 연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직접 가보고 이렇게 고생을 진짜 하는구나 하는 것과, 충남의 연구과제나 정책과제에 있어서 눈으로 좀 느끼면서 이사회 때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다음에 진행하는 어떤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보고 느껴지는 거예요.

- 이 많은 것을 이사님들이 연구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직접적인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간접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여해서 가슴 아픈 것은 보듬어주고,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필요에 의해서는 따끔하게 질책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호흡하면 좀 더 성장하고, 또 충남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의 장>

- 감사합니다.
- 저도 간단하게요. 우선 기관이 통폐합이 되는데, 2020년에 생겼군요. 갑자기 통폐합이 된 이유는 아마 저간의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배경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원 장>

- 박 이사님 부분부터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 정말 저희 연구 결과물이 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너무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연구진들도 결과물이 조금 실행 가능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수용 가능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고, 저희는 충분히 그런 걸 반영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현장에 우리 박사님들이 나가서 현장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럴 때 이사님들이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돌아가는 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관의 어떤 참여의 의미도 살리기 위해서 꼭 그것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는 못 하지만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 대해서 그 의미나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었었고, 저희도 충남연구원도 통폐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가치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통합이 됐을 때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는 솔직한 생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그동안 조금 생각지 못했던 다른 시각의 어떤 연구의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 과학기술진흥본부로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앵글을 과학기술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 특히 과학기술진흥부가 생길 때 국가 R&D사업에 국고를 조금 따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목표도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연구센터에서 타당성

검토나, 또 우리 경제, 산업, 시장에 대해서 하는 연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낼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 장>

-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시죠.

## <박종찬 이사>

- 먼저 원장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연구원을 잘 이끄셔서 안정되고, 그다음에 업적도 많이 남긴 것을 감사드리고요.
-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133인데 현원이 109명이고, 거기서 보니까 연구직이 8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15% 정도 이렇게 결원이 있는 이유가 퇴직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원 장>

- 그렇습니다. 퇴직자로 인한 전공에 조금 결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직장으로 옮기신 분도 간혹 있고요. 이게 나간 전공을 그대로 채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중장기 전략 방향에 맞는 전공분야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인건비 상황을 봐가면서 충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공분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종찬 이사>

- 이렇게 인력 충원 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시고요. 그런 면에서 퇴직 연구

원들이 사실은 한 2~30년 정도 재직하시고, 사실 이런 지역에 관한 연구는 히스토리를 쫓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과정.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라 퇴직하신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원 장>

- 우리 연구진 박사님들은 사실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출발선이 늦습니다, 일반 직장보다. 그런데 아깝게 형성된 경험과 연구 지식들을 60세로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 손실이 크고, 우리 충남의 경우에도 손실이 크다고 생각해서 정년이 좀 연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고요. 당장은 저희가 퇴직하신 분들을 명예연구위원으로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에 참여도 시키고 그런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사들>

- 없습니다.

#### <의 장>

-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호 “2022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제2호 “경영효율화 진행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1호 “2022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영 이사>

-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에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있고, 160쪽에 보면 ‘연구원 구성원 1인당 순이익이 1억8천 얼마씩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이게 지난번 이사회 때도 말씀 나왔던 건데요. 우리 연구원 성격을 감안했을 때 당기순이익 문제는 적절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도에서 환수조치가 있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왜 이 당기순이익이 감소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
- 그리고 120쪽에 나와 있는 1인당 1억3,200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게 웅색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떤 차원에서 이거를 제시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 <의 장>

-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조금 더 간략하게, 알아보셨습니까?

#### <임재영 이사>

- 결론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결국은 우리가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은 정확히, 나가는 돈은 주로 연구활동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인 연구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당기순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거를 30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120쪽에 1인당 수익 부분을 1억3천 얼마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모순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의 장>

- 설명해 보세요.

#### <재무회계팀장>

- 재무회계팀장 나우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드린 결산 자료는 행안부의 서식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고, 재무제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것이어서요. 현재 지금, 네.

### <임재영 이사>

- 양식을 따로 작성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어떤 착오나 아니면 어떤 연구원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반영된 의지를 나타낸 거라면 저는 동의하겠는데, 이 당기순이익하고 1인당 수입액 1억3천만 원 이상 됐다는 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자체에서, 주로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수익사업이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들 받은 거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는 어떤 거냐면 행안부 서식인데, 행안부 서식 중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있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여러 지표들을 분석하게 돼 있어요. 임재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저희 연구원 매출액, 수탁용역사업뿐만 아니라 도 출연금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직원 1인당 어느 정도의 매출액, 그러니까 회사로 보면 매출액이고, 저희가 연구원으로 보면 연구사업인데 그걸 나타낸 거고요.
- 앞에 말씀드렸던 당기순손실이 났는데,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났거든요. 1억9,200에 대한 당기순손실이 난 겁니다. 이 손실은 회계

연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과 비용이 넘어온 돈이 있고, 이월한 돈이 있는데, 기간 내로 보면 저희 연구원 재무제표상으로는 감가상각 등을 포함해서 1억9,200이 당기순손실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재영 이사>

- 김정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매출 개념으로 한다면 타당하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앞에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순이익 개념이 우리 공공기관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 <경영지원팀장>

- 이게 어떤 내용이나면, 행안부에 있는 결산지표는 약간의 수익적 구조를 표현을 많이 해요.

#### <임재영 이사>

- 팀장님, 이게 우리 팀장님 두 분이 이거를 임의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게 표현의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비영리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 <원 장>

-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와서 조금 놀란 게 저희가 비영리법인인데 왜 법인세를 내는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또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법인세에 대해 소명을 하게 돼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 그동안에 우리가 수익과 지출의 현금주의에 어떤 바탕을 둔 수익과 지출의 개념의 결산방식을 택해 오다가 지금 행안부에서 이게 민간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재무제표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라는 것이 법률적 근거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나타난 것이 당기순이익이라는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순이익이라는 부분도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경영의 지표와 관련해서도 일단 계산을 다 해서 부속명세서로 또 첨부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까지 결산의 방식을 택했던 현금주의라 한다면 이런 경우에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 한데, 지금 이게 양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임재영 이사>

- 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원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3억 정도를 도에다가 다시 반납한 적 있었죠?

#### <원 장>

- 네.

### <임재영 이사>

- 그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임원들 배당이나 이런 거 같 건데, 여기 계신 이사님들한테 배당하실 거 아니잖아요.

### <원 장>

- 일단 순손실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법인세를 신고하고 해야 된다는 그것도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일단 민간 어떤 단체는 다 그런 재무제표나 이런 방식을 따르도록 행안부에서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 <임재영 이사>

- 예, 그 부분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없고, 연구비 집행하는 과정에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연구원 정체성에 반하는 결과로 해석되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게 좀 항목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부분 부각 안 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원 장>

○ 예.

<의 장>

○ 정 이사님.

<정세은 이사>

○ 그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지금 다 이해가 되는데요. 연구원이 라고 하는 조직이 가진 특수성이 있는데, 이익을 내는 조직이 아닌데, 모든 이익을 내는 기관이 써야 될 그런 예산 형식을 쥐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쓰라고 하니까 맞춰서 쓴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는, 사실 이거는 순이익을 많이 내야 될 기관이 써야 할 그런 표인데,

<원 장>

○ 그러니까요.

<정세은 이사>

- 순이익을 낼 필요가 없는 기관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손실이 나면 우리가 방만해가지고 손실을 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저도 약간 헛갈리는 게 균형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다음에 내년엔 사업을 할 때 순이익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 기관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받아요? 순이익을 많이 내면 높은 점수를 받나요?

### <원 장>

- 저희는 해당사항은 없는데, 공사라는 타이틀이 붙은 공공기관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감시하는 공사, 지방공기업 그런 데는 경영평가 할 때 중요한 항목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도 같이 강제를 한 것 같습니다.

### <정세은 이사>

- 그러면 우리 연구원은 이게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나중에 성과평가 받을 때는 감안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원 장>

-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른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재정상태를 가지고는.
- 우리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 오셨으니까 혹시 한번 말씀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지와 관련된 것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느냐.

### <도청 담당자>

- 안녕하세요. 도청 정책기획관실의 이은선 주무관입니다. 사실 경영평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여서 제가 세세한 목록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서,

<원 장>

- 백운성 단장님, 혹시 경영평가에 수지 관련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구기획단장>

- 정량지표로써 일정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 장>

- 그러니까 그게 예전 뭐라 그러죠, 예전 기준으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를 받아야 불이익을 받고 그런 지표입니까?

<연구기획단장>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어떤 기관 차원의 관리에 대한 지표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원 장>

- 제가 이해하기로도 수익의 관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예·결산을 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고요. 결산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되면 ‘과도하게 방만경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의 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재영 이사>

-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원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3억 원대가 반납이 됐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재발될까 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말씀 다 동의합니다.

### <의 장>

-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 <정세은 이사>

- 그게 단순히 방식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게 연구원이라고 해도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원장님, 그렇죠?

### <원 장>

- 네.

### <정세은 이사>

-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치 우리가 어떤 형식이 정체성을 부정하거든요. 이게 매년 지속이 되면 ‘순이익을 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서 그럴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어서,

### <원 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조치해가면서 그렇게 대응할 게 있나,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배 이사>

- 혹시 이제 효과가 좀 나오면 경영평가 전에 인센티브제도가 여기에 있습니까? 경영평가 끝나면 인센티브,

### <원 장>

- 기관평가를 성과평가를 받고 그 퍼센티지가 우리 구성원의 성과급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평가가 가, 나, 다, 라 이렇게 내려갈 때 제일 위에는 150%, 125%, 100%, 기준액의. 그게 우리 성과급의 척도가 됩니다.

### <박정배 이사>

- 그러면 그 성과평가가 나오기 전에 자체평가에서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 <원 장>

- 그 기준액을 가지고 자체 등급을 가지고 또 차등지급이 됩니다. 100%가 정해지면 100%를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150%가 정해지면 150%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박정배 이사>

- 그러면 연구원이나 직원분들도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별도로 지급하시는군요?

<원 장>

- 네.

<박정배 이사>

- 그런 예산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원 장>

- 그렇습니다, 성과급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세은 이사>

- 죄송한데,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용역사업을 하나 했었거든요.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몇 천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성과를 내려면 그걸 다 드리면 안 되고 얼마를 빼서 드려야지 이익이 남는 걸로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로 들었는데 나중에 계약은 그거의 10%를 빼가지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이해되지요?

<원 장>

- 저희하고는 조금,

### <정세은 이사>

- 여기는 아니었는데, 다른 우리 공공기관이었는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성과, 순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 드러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해서,

### <원 장>

- 공사나 이런 데는 경영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익구조가 공사나 공기업은.

### <정세은 이사>

- 여기는 그게 아닌 걸로 시작이 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일률적으로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도지사님하고도, 연구원을 축소하니까,

### <원 장>

- 그렇죠, 출자·출연기관, 예.

### <정세은 이사>

-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박종찬 이사>

○ 이 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원 장>

○ 네.

<박종찬 이사>

○ 그렇다면 연구원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연구원도요.

<원 장>

○ 예. 이게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칙이 거의 다 지방 공기업의 준칙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조금조금씩 이사님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기관들이 늘어나 버리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 장>

○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충남연구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연구원들이 공통으로 맞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회계에 제가 능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이게 바뀌면서 이 숫자의 맞춤이 저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됐고, 무슨 이월 없는 뭐 없는 하면서 숫자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 그런 일에 조금,

#### <정세은 이사>

-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의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 <원 장>

- 그거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 <정세은 이사>

-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뭘 봐야 될지 모르는데.

#### <원 장>

- 사실은 이게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런 게 조금 익숙할 겁니다. 아까 임재영 이사님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유동자산이라든지 이랬는데, 그전에 우리가 현금주의로 입·출금 개념으로 회계를 정리할 때는 이게 자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밸런스, 은행 बैं크의 밸런스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건데, 내년도에 결산 시에는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저께 밤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게 여전히 조금 왜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게 조금은 아직은 좀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예.

### <의 장>

- 요구사항은 과거 방식대로 한번 아주 간단 요약해서라도 이렇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숫자가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 이게 맞는 건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 <정세은 이사>

- 그러면 원장님 말고 걸 담당했던 부서에서 어떤 점에 잘 됐는지 설명을 좀 하셔야지 그냥 딱 책을 주고 저희한테 이걸 주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라든지.

### <임재영 이사>

- 한마디만 더 올리자면요, 통합이 결정된 과학기술진흥원 재무제표 결과가 요약돼 있어요. 이 자료집 52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의 재무제표 결과 요약하고 우리 연구원의 요약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다는 말씀이에요.
- 52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약 1억 원이 좀 안 된 적자가 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게 여기 쓰여야 된다 그게 상식적인데, 이 정도면 결국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연구원 당기순이익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10억 원 이상 나온 이 부분은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면 ‘왜 준 돈만큼 니네 안 했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 <원 장>

○ 그게 이제... 말씀하십시오.

#### <공주시 미래전략실장>

○ 공주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 봐서. 29쪽을 쪽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남으면, 돈이 남으면 일을 안 했다는 논리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29쪽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이 있거든요. 4억4,600만 원 맞죠? 이자 발생했으면 충분히 이익이 남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 <임재영 이사>

○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까지 연결이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8천 같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 <경영지원팀장>

○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 보면 30쪽에 나와요. 당기순이익에서는 괄호 친 부분은 손실 부분이에요. 저희가 본 거는 당기순손실이라고요. 1억9,187만7,500원.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지원 관련해서 8,100만 원도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났다고 돼 있어요. 이



당기순손실은 현금수지로는 핑크가 난 게 아닌데, 기간 대 비율. 그러니까 회계학적으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출액 기준이나 그런 기준으로 보면 당기순손실이 날 수 있죠.

-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어떤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물건을 사면 5개년도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비용을 5개년도로 분리를 하거든요. 현금수지에서는 그냥 당해연도의 현금차감을 다 하는 거고, 회계학적으로는 5년 동안 비용을 합니다. 이런 갭들이 있어서 예산회계와 결산회계, 재무제표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지금 이 결산서가 오류가 안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가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이 결산서 자체가 아예 안 맞춰져요, 숫자 자체가. 이거는 행정기준에 있는 결산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 연구원의 현금수지, 예산수지는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동증 재정을 하는 거거든요. 1,50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 연구원 예산이 100억이 좀 넘는데, 일반회계가 1,500만 원 정도 났다면 거의 수익과 비용을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임의로 맞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용을 한 거죠.
- 그러니까 지금 임재영 이사님하고 약간의 그랬던 게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의 표시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 <정세은 이사>

-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자는 차원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고. 당기순손실, 순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아까 현금수지는 플러스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원 장>

-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 <정세은 이사>

- 잠깐만요. 현금 부분 그렇고, 그렇고, 여기다 또 자산 부채비율까지 붙여 가지고. 저희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이 런데 5년 중기로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 세요.

### <임재영 이사>

- 문제 이거 제가 했으니까 제가 짧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 팀장님,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료를 준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게 준비를 잘하셨고, 명확하게 해결하고 가시길 바란다는 거고.
- 제가 우려했던 거는 순세계잉여금 3억 원 넘는 돈이 도에 반납됐던 몇 년 전 일을 지금 상기시켜드린 것뿐이에요.

### <정세은 이사>

-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임재영 이사>

- 못 받으면서 주기만 하는, 넘겨주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

씀 드린 거예요.

## <의 장>

- 하여튼 다 충남연구원을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 같습니다.

## <박정배 이사>

-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 중에 이사님들 중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지난번에 했던 결산표와 지금의 결산표는 다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와 이사님들이 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번거롭지 않다면 이거 하나만 요약을 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썼는데 새롭게 바뀐 게 이거여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라 하고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 <원 장>

- 확인 3번 있잖아요. 9쪽, 11쪽, 14쪽 전부 다 나눠드리세요.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에는 회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 전출금, 전입금이라고 해서 주고받는데, 그게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게 재무제표상 회계처리에서는 그게 내부거래로 전부 다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특별회계 돈을 받았으면 그건 우리의 수입으로 잡히는데, 예전에 현금주의에서는 그건 제거하게 돼있고. 또 올해 발생한, 올해 지급이 되어야 할 연월차 수당이 내년도에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미

리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부채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의 연월차 수당은 내년도에 지급하니까 올해 빚으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서 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게 연월차 수당...
- 아까 임재영 이사님이 이야기한 연속 과제가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연속 과제가 많거든요. 회계연도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원래 과제를 갖다가 3억을 받았으면 종결이 되면 그게 회계처리가 깔끔한데, 회계연도를 넘어갈 때 진행률에 따라서 30% 진행됐으면 1억을 수익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재무재표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현금지출상에서는 이게 돈이 들어온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온 기준으로. 그런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실제로 감이 이루어진 그걸 기준으로 계상을 하는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세은 이사>

-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게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는, 제가 경제학과 교수니까. 발생주의가 원래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것인데, 분식회계 비슷하게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딱 그 예산이고 딱 할 때 보고할 때 아름답게 해서 딱 지나면, 원래 발생주의를 하면 이게 마이너스인데 현금주의로 마이너스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 <경영지원팀장>

- 맞습니다.

### <정세은 이사>

- 그리고 회피하고자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업을 하면 공기업이나 공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발생주의가 현금주의냐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연구원은 그건 아니잖아요. 발생주의, 현금주의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순손실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우리 현금은 +1,500이고, 이렇게 보여도 결국 문제가 없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경영지원팀장>

- 예, 맞습니다.

### <정세은 이사>

- 그런데 여기에는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로 크게 되어 있어서 저희 이사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현금주의 +1,500니까. 그런데 갑자기 임재영 이사님께서 예전에 3억이 플러스 났을 때 돈을 토해냈었는데,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돼서 간단히 흘러갈 수도 있는,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은 사실 플러스마이너스 그다지 상관이 없고 5년, 몇 년 지나면, 그렇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돈이 알아서 흔들어지는 스타일이어서.
- 뒤에 실무자분께서 약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 <경영지원팀장>

- 지금 작년부터 생겼던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출연금정산 조례가 있어요. 출연금을 주고 나서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출연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용역사업도 있어요. 수탁용역사업도 있어서 이것들 포션을 다 더해서 만약에 8:2 정도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 남았다 그러면 8천만 원 부분은 반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 임재영 이사님께서 몇 년 전에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 3억 반납은 그 당시에는 출연금정산조례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도에서 반납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 올해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반납 금액 정도는 아마 거의 한 1천만 원 정도면 반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수지에 대한 규모는 굉장히 잘 맞췄다라고 생각해요.

## <의 장>

- 여기서 우리가 길게 이해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아주 어려운 현금주의, 발생주의,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배웠고요. 다만, 연구원의 입장에서 숫자가 나온 것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진실을 믿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원 장>

-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검증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뒤에서 설명한 과장님 이름이 김정희 과장님인데, 설명을 잘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계학과 출신이더라고요.

<의 장>

- 이게 회계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일시적인 혼란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이게 추가 업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과거에 익숙해 있던 방식대로 아주 요약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과도기적으로 이사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은 이사>

- 지금 말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사고 여기에 사인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서면으로 해서. 지금 당장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원 장>

- 네네.

<의 장>

-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진호 이사 대리인 경영관리팀장>

-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지진호 대표님 대신해서 위임장 사인을 할 건데, 저희도 지지난주에 이사회를 거쳤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 그런데 지금 보면서 재무제표나 현금흐름표상 보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해서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금액이 마이너스처럼 보일 수 있고 안 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사님들한테 제안한 게 재무제표는 저희가 법인이나 법무사, 회계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믿고 가주시고, 저희 감사들이 확인하실 테니 믿고 가고, 이사님들이 봐주실 거는 이 재무제표나 현금 흐름표보다는 세입·세출 결산 그 파트를 보셔서 얼마 지출을 좀 어떻게 저희가 하고, 그 파트를 일부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했구요.
- 솔직히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금흐름표나 재무제표다 이해 못 해요. 회계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야 이래서 마이너스처럼 보이고 플러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세입·세출, 현금… 도로…

#### <의 장>

-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 <정세은 이사>

- 이쯤에서 하시는데요. 다음에라고 하는 건 1년 후인가요?

#### <원 장>

- 결산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세은 이사>

- 그럼 1년 후가 되면 또 그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하면 또 1년씩 못하시고.

<원 장>

- 네, 그러면 중간에 임시이사회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우리가 잘 비교표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 올리죠.

<의 장>

- 그럼 이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이사들>

- 없습니다.

<의 장>

- 그러면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사 전원>

- 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1호 “2022년도 결산(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2호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 <의 장>

- 감사합니다.
-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 장>

-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그동안 도로부터 받았던 출연금을 저희 회계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대상이 아니고요.

### <정세은 이사>

- 이의 없습니다.

### <의 장>

- 이의 없으시죠?

## <이사 일동>

- 예!

## <의 장>

- 그러면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2호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3호 “정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 <의 장>

- 감사합니다.
-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들>

-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 장>

○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예.

<의 장>

○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3호 “정관 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심의안건 제4호 “직제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들>

○ 없습니다.

<의 장>

○ 없습니까?

<이사 전원>

○ 예.

<의 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심의 안건 제4호 “직제규정 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이상으로 오늘 결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지금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충남연구원의 발전 방향, 뭐든지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세은 이사>

○ 아까 자꾸 세계잉여금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 아까 세계잉여금 현금 주의라 1,500만 남은 거죠?

<원 장>

○ 예.

<정세은 이사>

- 그러면 우리가 세계잉여금 남으면 반납한다 만다 이런 거는 현금주의에 관한 것인 거죠?

<원 장>

- 그렇습니다.

<정세은 이사>

- 발생주의 이것은 손실이 뭐,

<원 장>

- 그렇습니다.

<정세은 이사>

-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돈 반납하는 거하고 그건 상관없는데, 발생주의를 왜 하는 거예요?

<원 장>

- 아까 지진호 이사님 대신 오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현금주의로 하면 아까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걸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정세은 이사>

-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고요.

### <원 장>

-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속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세은 이사>

- 김정희 팀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워낙 아까 설명을 잘 하셔서.

### <경영지원팀장>

- 저희 연구원 결산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감사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결산서(안)에 공인회계사 감사에는 “적정 의견”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적정 의견”으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적정 의견”을 내린 거고요.
-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현금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1,500만 원은 비율대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임시이사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6월 달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결산(안)에 대해서 전후 비교 사정을 해서 이사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은 이사>

- 공인회계사가 잘못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경영지원팀장>

- 공인회계사 안 됩니다.

<정세은 이사>

-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을 가거나, 저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경영지원팀장>

- 그렇죠. 당연하죠.
-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원 장>

-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과학기술연구원의 실장님 한 분이 오셨는데, 혹시 한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한번. 인사드리면서 한번,

<성과확산실장>

-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의 문영식 성과확산실장입니다.
- 저희가 공공기관 독립 회오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으로 오늘 이사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제 한 식구가 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함께 잘 도와주시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배 이사>

- 저도 잠깐 건의, 이것도 건의라기에 인기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 분하고 같이 책을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때 주요 핵심 이슈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줘서 성과를 좀 높이게 하자, 이런 게 핵심인데, 오늘 보니까 원장님의 굉장히 열정, 그리고 연구원들하고 직원분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생길 것으로 보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자꾸 성과를 얘기하지만, 성과를 안 내면 평가를 못 받으니까. 성과를 받되 복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복지를 잘해준다고 사람의 마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소소한 거라도 좀 챙기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예를 들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단합대회를 위해서 어디를 한번 나갔다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치하하는 자리도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리더의 리더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 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게좋게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격려 한번 드립니다.

### <원 장>

- 감사합니다.

### <의 장>

- 감사합니다. 저희 충남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쪽으로 식구가 되신 분들 기쁘게 오신 거죠?

### <직원>

- 아 예.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잘 받아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잘 해보겠습니다.

### <의 장>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잘 보살펴주실 거고요.
- 또 다른, 예.

### <임재영 이사>

-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아 죄송한데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획경영실장님이나 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진 차원에서 역할 혼돈이 일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기획경영실장님한테 따로 드린 게 있었는데,
- 공공투자관리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실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자꾸 빚는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투센터장하고 우리 기획경영실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지금 없네요.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이 됐

으면 좋겠습니다.

<원 장>

○ 예, 말씀대로,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은 이사>

○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원 장>

○ 정세은 교수님 공투센터 자문위원이시군요.

<의 장>

○ 더 하실 말씀 안 계신가요?

<이사들 전원>

○ 네.

<의 장>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모두 심의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

지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실 우리 충남연구원은 충남도민을 결국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아주 당연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충남도민 이렇게 묶으면 추상명사가 돼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사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로 바로 클릭 한번으로 연결되는 그런 Connective Word가 됐는데요. 여기서 연구원에서의 어떤 기발한 창의력 독특한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세계 앞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연구원에 계시는 여러 분들 정말 성심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도전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원장님 또 오셔서 여러 가지 초기에 마음고생 많으셨습시다마는 상당히 안정돼 가는 그런 것을 제가 밖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도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의록 작성 날인

- 충남연구원 2023 제1차 정기이사회(2023. 3. 31.)의 진행 및 의결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서명이사,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를 증명함.

의 장 김 수 민 (인)

이 사 정 세 영 (인)

이 사 임 재 영 (인)

감 사 박 정 주 (인)